



여경협 건복, 여성기업인 2차 리더십스쿨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0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차 리더십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기업인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인사·노무, 세무 전략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2026년 노동환경 변화와 주요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인력 운영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제시됐으며, 세무 교육에서는 절세 전략과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교육을 통해 공공조달 및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도 안내됐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 궁금증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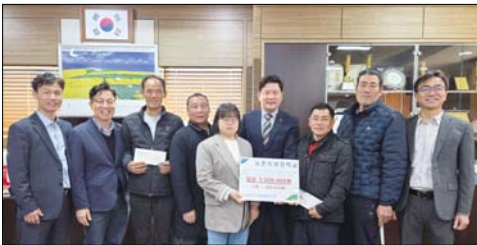


해리농협 상하 농가주부모임, 반찬 나눔 행사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 상하지점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달했다.

해리농협 상하지점 농가주부모임(회장 주승원)은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회원 30여명이 이틀간 불고기, 장조림, 김치 등 영양가 높은 반찬을 정성껏 조리했다. 완성된 반찬은 관내 소외계층 130여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운산농협 등, 다문화 자녀 농촌희망장학금 전달

NH농협재단과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최근 선운산농협 본점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차세대 리더 양성과 농업인 다문화 가정의 학업 지원을 위해 '농촌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촌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원을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동진 새마을지도자, 사랑의 밑반찬 나눔

부안군 동진면 새마을근로지도자회(회장 이승용·한윤자) 회원들이 지난 20일 동진면 죽림마을 일원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번 회원 20여 명이 취약계층 100가구에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고추장을 독거노인세대에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용·한윤자 새마을지도자회장은 "이번 나눔행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주택공급 확대, 정부 과제... 역할 막중”

김윤덕 국토부장관,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임명장 전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한국부동산원 임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먼저 김 장관은 이현욱 한국부동산원 신임원장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음”을 강조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미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사기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사장에게는 “T1 시장과 지방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낸 만큼 조직·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권희성 기자



삼계초 총동문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삼계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심상만)에서는 지난 21일 전주 연가 대연회에서 100여명의 동문과 삼계초등학교 이수연 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농촌유학생 주거시설 확충에 공이 많은 김학직 이사에게는 삼계초등학교 이수연 교장이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김삼기 동문에게 심상만 총동문회장이 지팡스러운 등문패를 그리고 농촌유학생 유치에 기여한 삼계초등학교 심해진 교사와 총동문회 김학운 동문 등 5명에게는 심상만 총동문회장이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입학식 5명 및 농촌유학생 7명 등 12명에게는 2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했다.

이날 제15대 총동문회장으로 재선출된 심상만 회장은 앞으로 농촌유학생 유치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박사급 농촌 유학 명품학교의 존속 발전을 도모하는 물론 재학생에 대한 선배 동문들의 재능 기부로 저축 및 금융 상식 강의와 지팡스러운 동문의 성공 사례 등의 소개 그리고 선, 후배의 토크 마당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소양 함양과 역동적인 동문회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시보건소, 싱싱생생 건강교실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역 어르신의 노쇠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싱싱생생 건강교실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8개소 늘어난 96개 경로당에서 32명의 노인 전문 체조강사를 선발해 지역 특성과 참여 어르신의 신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노년기 건강 위협 요인인 근감소,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을 예방하고 면역력 증진을 통해 신체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속 활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강사가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1시간 동안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과 가벼운 몸풀기, 근력 강화 체조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력(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우울증 검사,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병행해 어르신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이불세탁 등 청소 지원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은 지난 20일 시민소통 담당관실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동빨래방 사업과 연계해 위생 취약가구 10가구에 이불세탁 및 주거환경 청소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겨우내 사용된 이불 세탁과 집안 정리를 통해 취약가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마련. 통장들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6 행정실장 네트워크 운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소통 중심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종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3일 2026년 행정실장 네트워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실장 네트워크는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집합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더 청렴한 고창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담당 부서별 주요 전달사항 안내와 교직원 인사 관리·운영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분임 회의에서는 교육행정 현안 과제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계약·회계·시설 등 주요 분야의 청렴 실천 방안과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TP, 2026 제1회 선도기업 지역대표자 협의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임실·순창·남원 권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6년 제1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세운씨어퍼럴, 나우리 등 해당 권역 선도기업 대표자 16명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 가능성도 확인했다. 특히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 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 교류 활성화 방안과 산업 정보 공유, 기업 견학사상 수렴, 2026년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도연합회)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북선관위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범훈 전북선관위 사무처장과 경세광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사정에 밝고 조직력을 갖춘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금품수수나 불법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선거운동 위반행위의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율방범대원 대상 선거법, 포상금 제도 안내 △공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도공 충북과 청년농 협업 '맞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에서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쌀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할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참여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휴게소장협의회는 휴게소와 청년농 간 연계를 맡아 소비 촉진을 돕고, 청년농업인 식량사업포럼은 품질 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우선 음성휴게소와 금양휴게소 등 3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청년농이 생산한 유기농 쌀이 공급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영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휴게소 이용객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산업 간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 31일까지 봄맞이 야간 점검

김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가로등에 대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봄맞이 야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낮 시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로등 점등 상태와 조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며, 주요 도로와 변화가 주박가 및 이면도로 등 시민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확보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가로등 누전개소(19개소), △가로등 점등 여부 △점멸기 및 전기살이 이상 여부, △등기구 파손 및 노후 상태, △주변 수목에 의한 조도 저하 여부 등이다.

한편 김제시는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김제=곽노태 기자